

雨...雨...소금장수·우산장수 아들 둔 KIA

‘소금장수’ 임창용

7경기만 더 치르면 등판 가능
마운드에 설 날만 기다리는데
장마에 등판 늦어질까 조바심



장맛비를 보는 KIA 팬들의 마음이 두 가지다.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 아들을 둔 심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KIA 팬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 우여곡절 돌고 돌아 고향팀으로 돌아오게 된 투수 임창용과 오매불망 그리운 내야수 안치홍이다.

임창용의 복귀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임창용은 해외 원정 도박 스캔들로 한국 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올 시즌 50%(72경기)의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KIA의 시즌 73번째 경기인 임창용의 복귀 무대가 된다. 22일 경기는 KIA의 시즌 65번째 일정이었다.

국방부의 시계도 목록이 돌아가고 있다. 경찰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안치홍은 오는 9월3일 예비역이 된다. 상무에서 생활하고 있는 김선빈(9월21일)에 비해 18일 먼저 안치홍이 국방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

막바지 순위 싸움이 전개될 9월 초 제대를 하게 되는 만큼 팀이 5강 싸움을 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팀에 합류하도록 하겠다는 게 KIA와 안치홍의 생각이다.

두 사람의 시즌은 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KIA가 73경기를 소화하기 전까지 우천 취소가 되면 임창용은 하루 더 기다려야 하고, 반대로 안치홍은 하루 더 뛸 수 있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마운드에 오르고 싶은 임

창용에게는 장맛비가 아속하다.

임창용은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와의 홈 3연전에서 1군 선수단과 훈련을 하고 있다. 복귀가 임박한 만큼 야간 경기의 감을 살리고, 컨디션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루 내내 장맛비가 내렸던 22일 선수단은 챔피언스필드 3층 콘코스에서 러닝을 하며 몸을 풀었다.

후배들과 훈련을 진행한 임창용은 “장마라서 2~3경기 정도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아쉬운 표정으로 비에 젖은 그라운드를 내려다보았다.

임창용의 복귀 준비는 착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보다 몸무게도 3~4kg 줄었다.

임창용은 “보통 시즌 때 80kg 정도 몸무게를 유지하는 데 처음 합류했을 때보다 살이 빠져서 80kg가 됐다”고 언급했다.

꼭 돌아오고 싶었던 고향에서의 새출발을 위한 각오도 밝혔다.

“좋은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죄송하다”는 임창용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새 출발을 하게 돼서 기분이 남다르다. 마운드에 설 생각을 하면 기대도 있지만 걱정도 된다. 복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산장수’ 안치홍

9월 3일 제대까지 73일 남아
우천 취소되면 출전기회 늘어

‘가을잔치’ 위해 비야 내려라



“800득점·900타점 홈서 달성하려고...”

“맞은 데 괜찮아...출루 더 많이 하겠다”

덕아웃 T 특특

▲1위는 여기 계십니다 = 자신의 기록을 경신한 ‘만행’ 최영필(42)이다. 한역 최고령 투수인 최영필은 지난 21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7-5로 앞선 3회 선발 임준혁에 이어 마운드에 올라 2이닝 동안 탈삼진 5개를 뽑아내며 무실점 호투를 했다. 이날 경기가 KIA의 9-6 승리로 끝나면서 마운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최영필에게 승리투수 기록이 주어졌다. 지난해 8월 23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구원승을 기록한 이후 303일 만에 승리를 거둔 그는 송진우(한화·43세 1개월 23일) 최향남(42세 5개월)에 이어 최고령 승리투수 3위에 올라 있다. 김기태 감독과 취재진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최영필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KIA 관계자가 “1위는 여기에 계신다”며 웃었다. 이날 자리에는 최고령 승리투수 1위 송진우가 해설위원으로 함께했다.

▲홈에서 하려고 남겨뒀었다 봐요 = 800득점과 900타점에 1개가 부족했던 이병호가 안방에서 기록을 채웠다. 이번

호는 21일 경기에서 1회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나간 뒤 롯데 선발 박진형의 폭투로 홈을 밟으며 800득점을 완성했다. 2회 1사 2루에서 맞은 두 번째 타석에서는 좌전 안타로 2루에 있던 김주찬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900타점 기록도 동시에 달성했다. 경기가 끝난 뒤 이병호는 “홈에서 하려고 하나씩 남겨둔 것 같다”며 웃었다. KIA는 지난 주말에는 잠실에서 LG와 원정 경기를 치렀다.

▲괜찮아요 = 괜찮다고는 하지만 팬 잡지 않은 신종길의 다리다. 올 시즌 유난히 사(死)구로 고생을 하고 있는 신종길이다. 신종길은 지난 5월4일 왼쪽 종아리에 공을 맞으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그리고 16일 1군에 재등용된 신종길은 복귀 두 번째 경기였던 17일 LG 우규민의 공에 허벅지를 맞으면서 교체됐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21일에도 왼쪽 무릎을 맞으면서 신종길의 다리에는 영광의 상처가 가득하다. 신종길은 “맞은 부위는 괜찮다. 늦게 합류한 만큼 가볍게 치고, 볼넷을 끌러내면서 출루를 많이 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르헨티나 메시(등번호 10번)가 21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NRG 스타디움의 미국과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4강전에서 전반전에 프리킥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바티 넘은 메시...준우승 징크스도 깰까

‘A매치 55호골’ 아르헨 최다 바티스투타 기록 넘어...조국에 코파 우승컵 안길지 관심

21세기 축구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또 하나의 금자탑을 세웠다.

메시는 22일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를 통해 아르헨티나 역대 대표팀 최다득점 공동 1위에 올랐다.

메시는 이날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준결승전에서 전반 32분 2-0으로 스코어를 벌리는 추가골을 뽑아냈다. 1골 2어시스트를 기록한 메시의 활약에 힘입은 아르헨티나는 미국을 4-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골대에서 20여m 떨어진 지점의 프리킥 상황에서 메시가 왼발로 잡아 찬 공은 미국 골키퍼의 손이 닿지 않는 골대 오른쪽 상단 구석에 빨려 들어갔다. 이로써 A매치 55호골을 기록하게 된 메시는 아르헨티나 통산 A매치 최다골을 보유했던 가브리엘 바티스투타를 넘어섰다.

바티스투타는 1991~2002년까지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골잡이로 활약한 레전드로 2005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메시는 2006년 3월 1일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넣었다. 이후 10년 3개월여 만에 A매치 55골을 작성하며 새로운 레전드가 됐다. 이날 경기에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에 나선 메시는 경기 초반부터 활발한 모습을 보이면서 팀을 결승으로 이끌었다.

프리킥 득점 외에도 팀의 선제골과 네 번째 득점을 돕는 활약을 펼쳤다. 오는 27일 열린 결승전 상대는 칠레와 콜롬비아가 펼치는 준결승전의 승자다. 메시로서는 자신에 대한 고국 아르헨티나 일부의 싸늘한 시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메시는 소속팀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에 비해 국가대표팀에서는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인 무대에 데뷔한 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의 우승에 공헌했

지만 정작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의 활약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선 무득점에 그쳤고, 팀도 8강에서 탈락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선 대회 MVP인 ‘아디다스 골든 볼’의 주인공이 됐지만 팀은 결승에서 독일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해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선 주최국 칠레에 우승컵을 넘겼다.

메시도 이 같은 상황을 답답해하고 있다. 메시는 “소속팀에서는 모든 우승을 다 해봤다. 대표팀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메시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자신의 희망대로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페인-이탈리아 ‘너무 일찍 만났다’

16강 격돌...4년전 결승전 스페인 4-0 완승



2016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조별리그가 막바지로 접어들어 가운데 우승 후보인 ‘무적함대’ 스페인과 ‘빛장수

참가국 가운데 벨기에(2위)와 독일(4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글로벌 투자는 행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우승국에서도 개최국 프랑스(23.1%)와 독일(19.9%)에 이어 13.6%로 세 번째에 올랐다.

스페인인 1964년과 2008년, 2012년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 축구를 평정했다.

비’ 이탈리아가 16강에서 격돌하게 됐다. 스페인은 22일 열린 D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크로아티아에 1-2로 져 2승 1패(승점 6)로 크로아티아(2승 1무·승점 7)에 이어 조 2위에 머물렀다.

D조 2위는 E조 1위와 16강을 벌인다. E조에서는 이탈리아가 벨기에와 스웨덴을 각각 2-0, 1-0으로 물리쳐 남은 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일찌감치 조 수위를 확정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4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유로 2012 결승전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16강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4년 전 결승에서는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4-0으로 완파하고 사상 첫 유로 2연패를 달성했다. 이번에는 어느 한 팀이 8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짐을 싸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우승 후보군에 꼽힌다. 특히 스페인은 국제 축구연맹(FIFA) 랭킹 6위로 이번 본선

4년 전보다 전력이 못하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안드레 이니에스타와 다비드 실바, 세스코 파브레가스, 티아구 알칸타라 등이 버티 최강 전력을 자랑한다.

이탈리아는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스페인보다 다소 처진다. FIFA 랭킹은 12위이고, 유로 우승은 1968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러나 월드컵에서는 2006년 독일 대회를 포함해 역대 4번 우승컵을 들어 올린 영리한 우승 후보다.

베테랑 잔루이지 부폰이 든든하게 골문을 지키고, 안드레아 베르탈리니와 레오나르도 보누치, 조르지노 키엘리니가 뒷문을 걸어 잠근다. 이탈리아는 빛장수비답게 앞선 두 경기에서 무실점으로 들어 막았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넘어 유로 3연패를 위해 진전될 것인지, 이탈리아가 4년 전 패배를 설욕할 것인지 벌써 전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이 28일 경기가 열린 스타드 드 프랑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물, 세계핀수영 다관왕 노린다

핀수영 강관 장애물(광주시체육회)과 이관호(대전시청)가 제19회 세계핀수영 선수권대회 남녀 부문에서 다관왕을 노린다.

이관호와 장애물은 24일(한국시간) 그리스 볼로스에서 개막하는 세계핀수영 선수권대회에 참가한다. 이관호는 표면 50m·100m, 잠영 50m·100m, 계영 400m 등 총 5종목에 출전해 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그는 작년 11월 표면 100m 아시아인 기록, 올해 3월 잠영 5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핀수영 세계 일인자 자리를 지키는 장애물(광주시체육회)도

다관왕을 노린다. 그는 작년 세계핀수영 선수권대회에서 잠영 50m, 표면 50m·100m, 호흡 잠영 100m를 석권하며 4관왕에 올랐다. 특히 지난 대회 표면 50m에서는 세계신기록(17초08)을 세웠다.

작년 부문엔 신예 최민지(충남체육회)의 활약이 기대된다.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이번 대회에 13명의 선수로 구성된 대표선수단을 파견했다. 이병두 명예회장이 단장을 맡으며 박순호 용인대 교수가 감독으로 참가한다. 염혜수, 고윤혁 코치가 박 감독을 보좌한다. 대표팀은 21일 출국했다. 이번 대회는 27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